



다시 대한민국!  
새로운 국민의 나라

※엠바고 :

배포 : 2024년 4월 23일(화)

## 윤석열 대통령, 루마니아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(4.23)

- 「대한민국-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」 채택 -  
- 방산, 원전 등 전략적 분야의 양국 협력 확대 -

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4/23, 화) 공식 방한 중인 「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(Klaus Werner Iohannis)」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,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지난해 한-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,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「대한민국 -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」을 채택했습니다.

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,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「국방협력에 관한 협정」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, 훈련 교류,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 하면서,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

되고 있으며,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.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,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지난해 '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'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, 원전 설비 개선, 소형모듈원자로 (SMR)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양 정상은 또한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,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,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'무탄소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'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.

아울러,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, 경제안보, 사이버안보,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,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한편,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,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또한,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, 인태 및 한-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, 한-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(MOU) 서명식에 임석했습니다. <끝>

※ 양국 정상 임석 하 서명 문서(총 4건)

-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<sup>(한)</sup>국방부 장관-<sup>(루)</sup>국방부 장관
- 대한민국 외교부와 루마니아 외교부 간 문화, 미디어, 청소년, 스포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
(<sup>(한)</sup>외교부 장관-<sup>(루)</sup>외교부 장관)
-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루마니아 에너지부 간 원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
(<sup>(한)</sup>산업통상자원부 장관-<sup>(루)</sup>에너지부 장관)
-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루마니아 내무부 간 긴급 재난상황 및 재난안전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 
업무협약(<sup>(한)</sup>행정안전부 장관-<sup>(루)</sup>내무부 차관)